

## 오리불황 장기화 대책마련 시급

오리업계의 불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월 5일 현재 산지 육용오리 가격은 중부권이 3천5백원선, 영호남지역이 4천2백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나 산지출하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리고기 소비역시 크게 증가되지 못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이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산지오리가격이 2천5백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다량수매시 가격은 하락한 상태에서 3개월 짜리 어음으로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 사육농가는 가격하락 자금회전이 안되는 2중고를 겪고 있다.

오리산지 가격의 이같은 현상은 지난 추석을 전후하여 출하되지 못한 육용오리 적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한 원인은 생산량 증가 및 소비위축 등 2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지오리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서 오리입식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겨울철들어지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겨울철 난방비등 생산비 증가로 현재와 같은 생산비 이하의 가격하에

서는 사육하면 할수록 농장 경영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육업계의 어려움은 부화업계에 까지 영향을 미쳐 오리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은 이같은 산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새끼오리 생산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오리업계의 불황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오리업계의 장기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사육량 감축 및 가격회복을 위한 수매비축,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중국산 가금육 수입 불투명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재개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정부가 지난 8월 입안하여 9월에 확정된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중국측이 위생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조건완화를 우리측에 요청해 왔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측의 요구조건이 질병발생지역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그 성에서 질병이 발생된 경우 그 성에 국한하여 수입중단등 조치를 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여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재개는 난항을 겪고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투명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국측요구의 수용여부는 아직도 검토중에 있다며 그러나 수입재개의 방향은 잡힌상태이므로 관련업체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수입재개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오리고기 소비촉진위해 모범 요식업소 인증제 시행

오리고기의 소비촉진과 국산오리의 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수입육과의 차별화 유통을 위한 모범요식업소 인증제가 시행된다.

본회는 지난 11월 8일 이사회를 겸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대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키로 했다.

오리 생산과잉에 따라 산지오리가격의 폭락으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는 국내 오리고기 소비량의 70%가 일반 요식업소를 통해 소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산지오리가격과 최종유통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처인 요식업소의 오리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업계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결방안

의 하나로 이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의 주요골자는 품질좋은 국내산 오리고기를 위생적이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요식업소에 대하여 본회의 심사규정에 의한 모범요식업소로 지정하여 오리고기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이 우수한 오리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데 두고있다.

관련업체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오리고기 비싸다는 인식 소비촉진 저해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오리고기가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도를 변화시켜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오리고기가 돼지고기에 비하여 싼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은 오리고기가 비싼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의 정육점 납품가격은 도매 가격기준으로 kg당 5천7백원, 오리고기는 4천5백원으로 오리고기 가격이 돼지고기 삼겹살에 비해 8백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고기가 돼지고기 보다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은 유통과정에서 최종납품처인 요식업

## 오 리 정 보

소에 납품되는 가격이 높은데다 요식업소역시 마리당 판매 방식을 고수하여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삼겹살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사먹으면서도 인식은 비싼 고기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인식을 불식시켜 오리고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지출하시 가격정산이 마리당에서 kg으로 전환되고 유통가격역시 kg으로 정착되어 최종소비처 역시 kg 또는 g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 정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새끼오리 가격 크게 하락 당분간 약세 전망

지난 9월을 전후하여 8백원선으로 인상된 새끼오리 가격이 10월 중순이후 하량조정돼 11월을 전후로 6백원선에 거래되어 전년 동기 1천원에 비해 무려 40%가량 크게 하락했다.

이와같이 새끼오리 가격이 크게 떨어진 주요인은 새끼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지오리가격 폭락으로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새끼오리 입식을 기피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새끼오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새끼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9월,10월의 종오리사료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리려 증가되는 양산을 나타내고 있어 오리고기 소비물량의 급

격한 상승에 따른 산지오리가격이 회복되지 못하면 새끼오리 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불황기 사육농가의 대처능력이 변하고 있다.

불황에 대비하는 오리사육농가들의 대처방안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96년과 97년도의 불황과는 달리 출하일령이 넘어서 농장내 오리가 체화되는 경우 사육농가에서 직접 오리를 도축하여 저장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종전 불황시 유통업자에게 의존하던지 아니면 직접 잡아서 시장에 출하하던 종전의 형태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서만 3개농가에서 약 6천수의 오리를 자체 도축하여 비축하는가하면 충남에서는 1개농가에서 약 3천수의 오리를 자체 도축하여 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같이 사육농가에서 오리를 직접 비축하는 것은 출하일령이 넘어서 60일령가까이 되면 탈모가 안되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또 가격또한 큰 폭으로 하락한 가격에 출하가 불가피하므로써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리사육 포기농가  
늘고 있다**

11월들어 오리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1천5백수의 오리를 주당으로 입추하던농가가 최근 오리입식을 전면 중단하데이어 충남에서 1천수의 오리를 주당으로 입추하던 농가역시 지난 10월 중순을 전후로 오리입식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기도 안성에서 2주간격으로 2천수내외의 오리를 입식하던 농가역시 10월 중순 오리식을 완전 중단하였으며 경기도 오산에서 주당 1천수내외의 오리를 입식하던 오리사육농가역시 새끼오리 입식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상으로 오리를 입식하고 있는 농가역시 종전의 사육규모에 비해 새끼오리 입식수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같이 오리사육농가들의 사육포기 및 새끼오리 입식수수를 줄이고 있는 것은 출하되는 오리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출하되면서 누적되는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란종오리 사육수수  
20만수 넘어섰다**

산란종오리 사육수수가 오리업계 사

상 처음으로 22만수를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회가 자체집계한 10월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산란 종오리 사육수수 집계결과 드러났다.

이에따르면 10월 종오리사료 생산량은 2천59톤으로 종오리 총사육량은 27만3천8백47수로 전년 동기 18만 8백80수에 비해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순수하게 산란에 가담하는 암컷 종오리 사육수수는 22만 8천5백49수로 산란에 가담하는 종오리 사육수수가 사상처음으로 22만수를 넘어섰으며, 수컷 종오리는 4만5천3백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종오리 사육량은 지난 97년도 1월 종오리 사료생산량이 1천8백19톤을 기록하여 종오리 총사육량이 24만1천9백27수에 비해 13% 증가된 사육량이다.

또 97년도 1월 암컷 종오리 추정 사육량 20만2천수에 비해서는 2만6천5백수가 늘어난 사육량이며 전년 같은 기간의 암컷 종오리 사육량 15만1천수에 비해서는 무려 7만7천5백수가 늘어난 사육량이다.

이와같이 종오리 사육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경기호황으로 신규 부화장이 늘어난데다 기존 부화장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육량을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